

“중국정부 탈북자 복송 즉각 중지하라”

전세계 50개 도시 중국영사관에서 목회자, 시민들 시위

중국 정부의 탈북자 복송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0일 낮 12시, LA 중국 영사관 앞에는 남가주 교계를 중심으로 발족된 해외 300인 목사단(단장 박희민 목사)을 비롯해 시민 1백여명이 모여 탈북자 복송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해외 300인 목사단은, 베델한인교회 담임이자 '북한자유를 위한 한인교회 연합(KCC)' 대표간사인 손인식 목사를 중심으로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원로목사,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송정명 목사, 위싱턴중앙교회 이원상 원로목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 행사는, LA뿐만 아니라 세계 50여개 주요 도시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이날 LA 지역 시위에는 손인식 목사를 비롯해, 박희민 목사, 송정명 목사, 김인식 목사 등 1백여명이 참여해 피켓과 배너를 들고 중국 정부에 탈북자 복송을 전면 금지하도록 평화적인 압력을 가했다.

개회사에서 송정명 목사는 “진



손인식 목사가 강제 복송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UN을 향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보와 보수를 넘어 인권을 짓밟는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이번 시위가 일회성이 아닌, 탈북자 복송이 중지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대에 간략히 설명했다. 이어 대표기도 바통을 이어받은 김인식 목사는 “여기 모인 우리의 작은 간구와 외침으로 인해 탈북자들을

구원하는 역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길 바란다”며 뜨겁게 기도 호소했다. 설교한 박희민 목사는 “탈북자 인권유린의 참혹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이슈화해서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김인식 목사와 랜드 밀러

씨가 1분 스피치를 했고 장창호 목사, 박병기 목사가 한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호소문을 낭독했다. 조철희 목사, 손인식 목사가 UN을 향해 호소문을 발표하고 맨 남 목사, 김요셉 전도사가 탈북자 송환금지 구호를 외친 후 모든 참석자가 평화 행진을 벌였다. 정한나 기자

주님 다시 사셨네! 남가주 지역 부활절 예배

10개 지역에서 연합예배 성황리에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남가주 지역 성도들도 어두움을 깨고 연합새벽예배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다. 올해 남가주 지역에서는 총 10개 지역에서 부활절 예배가 열렸다. LA는 동양선교교회, 오렌지카운티는 베델한인교회, 동부는 선한목사장로교회, 중부는 감사한인

교회, 사우스베이는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벤주라는 카마리온연합감리교회, 샌퍼난도밸리는 밸리연합감리교회, 인랜드는 인랜드운누리교회, 샌버나디노는 장대교회, 샌디에고는 복쪽은 팔로마한인교회, 남쪽은 한빛교회에서 각각 예배가 거행됐다.

→ 2면에 계속

교회 미디어 사역 무료 컨설팅

현대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음향, 영상 설비가 가지는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동일한 설교 메시지라 하더라도 보다 좋은 음향 시설이 있다면 설교자의 감정이 더욱 잘 전달될 수 있고 예배 때 상영되는 프리젠테이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두가지다. 먼저는 이런 설비가 없는 경우다. 그런 데 더 큰 문제는 교회 규모에 맞는 적절한 설비가 되어 있더라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해 선택하는 경우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레이저비전에서 한인교회를 찾아가는 섬김을 펼친다. 무료로 음향, 영상, 조명 등의 다양한 설비들을 점검해 주고 보다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시스템을 컨설팅 해 준다.

레이저비전은 지난 20년동안 미국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수준높은 서비스를 펼쳤으며 최근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행사들에 기술 및 장비 지원을 맡아 노하우와 기술을 인정받았다.

레이저비전은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며 특히 한인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컨설팅을 준비했다. 이 컨설팅에서는 교회 내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단부터 효율적 사용에 관한 노하우까지 전수해 준다. 음향, 영상 등 미디어 사역을 갓 시작한 교회는 물론, 전문 사역자가 부족한 교회, 설비를 보다 잘 활용하고 싶은 교회에 권할 만하다.

특히, 이번에는 교회가 효과적으로 미디어 사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컨설팅해 줄 계획이다.

이 행사는 레이저비전과 기독일보가 주관하고 남가주교회, 미국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수준높은 서비스를 펼쳤으며 최근

한미기독교교회관 기금 마련 위한 일일식당 개장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가 이민 한인교회를 위한 한미기독교교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 마련을 위해 일일식당 리본 커팅 세리머니를 9일 오전 10시 30분 북장동순두부 LA웨스턴 지점에서 개최했다.

이번 일일식당은 다호칼비(LA 월서+일본)와 북장동순두부 LA웨스턴 지점 및 세리토스·가든그로브·토랜스·로렌하이츠·밸리·얼바인·플러튼 지점에서 5일간 열린다.

이 자리에는 목회자들과 유제승 한미은행장, LA한인회장에 출마한 박요한 장로 등이 참석했다. 김영대 목사는 “기독교교회관 건

립을 위해 첫번째 사역인 일일식당을 개최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일이 기독교교회관에 있기를 기도한다”며 “많은 분들이 협력하셔서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제승 행장은 “목사회에서 기금 모금 계좌를 한미은행에 열기로 했다”며 “한미은행도 회관을 위해 최대한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대 목사는 회관 건립을 위한 기간을 3년으로 잡고 예산을 기존에 정한 200만불에서 500만불로 늘리고, 4월 중순에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교계 관계자들에게 지원을



남가주한인목사회가 기독교교회관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식당을 시작했다.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각 교회에서 선교헌금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관은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교회관

모델로 해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채소, 목사회 사무실, 기독교박물관, 컴퓨터 등을 둔다.

토마스 맹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TAX 문제 전문

자신동결 및 은행구좌 차입해결, 일민세금사감, 세무감사대리,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Clients	Case (Dec/11-Jan/12)	Results
Mr. Hwang, W	IRS \$62,317	합의 \$8,218
Mr. Lemonnier, H	FTB \$118,874	합의 \$1,700
Ms. Wilson, M	IRS \$450,190	합의 \$20,160
Mr. Kim, H (C. Corp)	BOE	Sales Tax Audit Audit Dismissed
Mr. Rogers, A	IRS \$327,280	Levy lifted & \$500/mo
Mr. Farley, C	IRS \$3,112,350	합의 \$0

KC Choi, E.A.

TAX HELP TEAM (213) 248-0221

Since 1999 HYM 남가주청년연합회 www.hym.cc

제26회 남가주청년연합집회

MISSION POSSIBLE

But my life is worth nothing to me unless I use it for finishing the work assigned me by the Lord Jesus the work of telling others the Good News about the wonderful grace of God. [Acts 20:24]

일시: 2012년 4월 21일(토), 22일(주일) 오후 7시

장소: 인랜드교회 (Inland Church)

강사: 첫째날 윤대혁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부목사)
둘째날 박형은 목사 (동양선교교회 담임)

오시는길

HYM : T 714.393.5135(Douglas Kim 대표), 323.459.9832(전정하 목사) / hym21c@hotmail.com
인랜드교회 : T 909.622.2324 /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 www.inlandchurch.org



LA 지역 성도들은 동양선교교회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사진 제일 우측은 설교하는 변영익 목사.

부활의 능력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연합예배로 교회 하나됨 확인하고 뜨거운 기도로 부활 외쳐

LA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라

LA 지역은 그동안의 전통에 따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한 가운데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렸다.

LA 지역 연합예배는 최근 미국이 처한 영적인 위기와 경제적 위기에 따라 성도들이 이 영적 위기, 경제적 위기 후에 있을 기쁨을 기다리자"고 설교했다.

변 목사는 "부활의 아침이 되니 캄캄한 밤, 무서운 고통이 모두 물러가고 새 생명의 빛이 넘친 것처럼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부활의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배 후 짧은 기도회에서도 목회자들은 부활의 권능이 이 세상의 악과 성도들의 고난을 이기게 할 것을 기도했다. >박효우 목사(종성교회)는 미국을 사로잡은 동성애와 자유주의, 사단의 계략이 예수 부활의 능력 앞에 떠나갈 것을 기도했고 >엄규서 목사(원서크리스천교회)는 한반도의 분열과 갈등이 부활의 사랑으로 치유되길 기도했다. >정요한 목사(미주베델교회)는 이민교회와 이민사회가 모두 부활의 하나로 치유되고 번영하길 기도했으며 >정우성 목사(남가주광명교회)는 동포사회와 세계에 부활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길 기도했다.

LA의 예배에는 남가주 한인사회를 대표해 신연성 LA총영사가 참석했다. 그는 "한인사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조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곳도 교회이며 갈등과 긴장을 겪을 때 화해의 촉매 역할을 해 주신 곳도 교회이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예배에서는 진유철 목사(수석

부회장, 나성순복음교회)가 사회를 맡았으며 정충일 목사(새일교회)가 성경을 봉독했다. 남가주장로성기단이 "주 예수 이름 높이어"라는 찬양으로 은혜를 더했으며 홍성관 목사(예벳선교교회)가 헌금기도, 박형은 목사(동양선교교회)가 환영인사, 박세현 목사(예수로교회)가 광고, 박종대 목사(남가주중앙교회)가 축도를 맡았다.

OC 연합으로 부활의 기쁨 노래해

OC 지역의 부활절 예배는 부활이 주는 의미 중에 연합에 주목했다. OC 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등 세 단체가 연합해 예배를 준비했고 남쪽 OC 지역 성도들을 위해 장소도 일반인에 소재한 베델한인교회로 잡았다. 이런 취지에 화답하듯, 1천명 이상의 성도들이 부활의 아침을 연합예배로 맞이했다.

새벽 4시 반, 이른 시각. 어둠이

독한 미명에도 불구하고 베델한인교회 주차장에 차가 하나둘 들어서더니 어느새 부활절 아침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30여 명이 지나 교회 본당에 들어서자 예배 순서를 맡은 사회자의 "해피 이스터!(Happy Easter)" 힘찬 인사와 함께 거룩하고도 웅장한 예배의 막이 올랐다.

예배 순서는 OC교협 회장 엄영민 목사의 사회,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의 대표기도, 서준석 집사(OC전도회연합회 총무)의 성경봉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설교 순서에서는 일반인집례교회 한중수 목사가 나서서 "빈 무덤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암축 설교했다. 한 목사는 특유의 섬세하면서도 짜릿한 목사로 "예수님은 파워입니다"라며 짧고 굵은, 파워풀 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했다.

예년과 달리, 특히 올해 연합예배에는 '동족을 위한 부르짖음' 순서

도 넣어 시도했다는 점에서 신선함을 더했다.

이 순서는 >한국민족을 향한 부르짖음(민경엽 목사, OC교협 수석부회장) >한국교회를 향한 부르짖음(윤덕곤 목사, OC교협 부회장) >미국교회를 향한 부르짖음(고석찬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이민교회를 향한 부르짖음(안근성 목사, OC목사회 부회장) >탈북자들을 향한 부르짖음(손인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순으로 구성돼 각 기도제목에 놓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뜨거운 기도의 손을 모았다. 특히 미주 한인교회 내 탈북자 사역을 선도해 온 손인식 목사의 '부르짖음'은 추상적인 외침에 그치는 것이 아닌, 탈북자들을 돕는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행동과 진정성이 가미돼 더욱 호소력이 짙었다.

이어진 헌금기도 순서는 손찬우 집사(OC전도회연합회 회장)가 맡았으며, 백낙균 목사(OC교협 총무)의 광고, 송규식 목사(OC교협 음악분과 위원장)의 지휘 하의 연합찬양대 찬

양에 이어 신중은 목사(OC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이날 모여진 헌금은 전액 OC 지역대학과 선교단체를 돕는 후원금으로 쓰여지게 된다.

동부 기도로 볼타오른 부활의 힘

선한목자장로교회에서 열린 동부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는 LA동부지역교회자협의 주최로 열렸다. 동부 지역 여러 교회 성도들이 참여해 연합의 의미를 다졌고 설교 후에는 뜨거운 중보기도를 했다. >동부 지역 교회 연합, 2세 사역의 확장 및 질적 성장을 위해서 송병주 목사(선한목자교회)가 기도했고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이우익 목사(나성교회)가 기도했으며 >북한의 탈북자들의 안전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박승규 목사(동부사랑의교회)가 기도했다.

설교는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사건,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2012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지도자대회
RENEW 다시 새롭게
NEW
05.25-28
LAKUMC

주최: 파트너교회 연합회 | 총회제자훈련부
후원: 한인목회화합협의회 | 총회고등교육사역부
주관: **LA연합감리교회**
www.LAKUMC.ORG

Speaker
강사소개
주제강의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연합집회강사
이성철 목사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장

안영훈 목사
아를라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파트너교회연합회장

폐회예배
박종일 장로
후러싱 제인교회 전 대외 준비위원장

Workshop
워크숍 안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DNA
강원근 목사 (뉴헤이븐 한인연합감리교회)
한국계 여성의 역할과 다중문화
박익로 목사 (총회고등교육사역부)
건강한 외중-관계의 회복과 치유사역
장학순 목사 (한인목회화합협의회)
Me & Mom
김영윤 사모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
새신자 정착과 양육
이영성 목사 (남가주 주님의교회)
두 날개로 움직이는 교회
손미애 권사 (원서연합감리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일대일 제자양육팀 (LA연합감리교회)
역동적인 예배와 찬양
진정우 권사 (LA연합감리교회)

Small Group
소그룹1-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소그룹2- 나를 새롭게 하소서
소그룹3-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소서
소그룹4-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소그룹5-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렌지카운티의 한인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다. (위) 샌디에고 지역은 성도들이 새벽에 예배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를 감안해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각각 연합예배를 드렸다. (아래 좌: 남부, 아래 우: 북부)



동부 지역(위)과 중부 지역(아래) 성도들은 부활절 예배를 통해 주님의 부활과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묵상했다. 두 지역 모두 뜨거운 기도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다.



샌버나디노 한인들도 부활을 맞이해 연합예배를 드렸다. (상) 벤추라 연합예배 후 예배를 준비한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중) 라스베이거스에 연합예배에 은혜 가운데 거행했다. (하)

가 말했다. 그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이 없는 생명의 부활이 없다”고 강조하며 “하나님을 의뢰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주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는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 대표기도는 고태형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 봉헌기도는 전병주 목사(나성한미교회), 축도는 김민섭 목사(회장, 엠마오장로교회)가 말했다.

후에 다시 사신 것”이라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장재원 목사(북원교회)가 미국과 한국을 위해 ▷민준기 목사(가주장로교회)가 중부지역과 중부교회를 위해 ▷용장영 목사(큰사랑장로교회)가 청소년비전센터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라며 “주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며 참 생명이 되셨다. 부활은 창조 능력이자 재창조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특별히 ▷사우스베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이호민 목사(가디나신교회) ▷한국과 미국을 위하여 이황영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 ▷세계 선교를 위하여 윤석형 목사(산성교회)가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다.

데 ▷이희철 목사(갯스원연합교회)가 아일랜드 영적 부흥을 위해 ▷손상현 목사(두란노교회)가 2세 자녀들을 위해 ▷윤석길 목사(에덴신교회)가 한국과 미국의 도덕적 각성과 영적 부흥을 위해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교 김성일 목사(회장, 빅토빌예수마음교회), 현금기도 및 축도 이준준 목사(장대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특별히 이날 동성애 교육 반대를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김성일 목사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전하며 설교를 마쳤다.

샌디에고 지역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다. 샌디에고 남쪽 지역은 한빛교회에서 모였다. 정수일 목사(한빛교회)가 사회, 이호영 목사(씨월드교회)가 대표기도, 연합성가대의 특별찬양, 조다윗 목사(샌디에고제일침례교회)의 설교, 박홍준 목사(샌디에고 베다니교회)의 현금기도, 손찬식 목사(샌디에고 삼일교회)의 축도 순서로 예배가 진행됐다. 조다윗 목사는 “예수 부활했으니”라는 설교에서 “우리가 비록 육신 안에서 살지만 영생의 소망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자”고 당부했다.

중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되자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가 주최한 연합예배는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인도 박소건 목사(회장, 새순커뮤니티교회), 대표기도 황에스터 목사(승현성결교회), 성경봉독 차권희 목사(하늘영광교회), 찬양 감사한인교회 성가대, 설교 조창훈 목사(살로암교회), 현금 김순옥 목사(스텐튼감리교회), 현금특송 카이로 스선교위십, 광고 전동은 목사(청소년비전센터), 축도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부활에 연합된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조창훈 목사는 “부활절의 의미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

사우스 베이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복음 전할 것

사우스베이 지역도 사우스베이목사회의 주관으로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 올해 연합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기쁨을 증거했다. 예배 인도는 구진모 목사(사온연합감리교회), 기도는 김바울 목사(조은교회), 성경봉독은 고통과 목사(사우스베이사람의교회), 찬양은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찬양대, 설교는 김관중 목사(회장, 사우스베이 벨렝장로교회), 축도 박종길 목사(가디나한인교회)가 말했다. 김관중 목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악과 무능을 쫓아내고 허물을 덮어 준 사건”

인랜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영생의 소망을

인랜드 지역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에는 인랜드교회 주교회인랜드은누리교회에서 오전 5시 30분에 드렸다. 예배는 사회 마원철 목사(인랜드은누리교회), 대표기도 박신철 목사(인랜드교회), 말씀봉독 강문수 목사(남가주웨슬리교회), 설교 박혜성 목사(회장, 남가주웨슬리교회), 현금기도 유양진 목사(연약교회), 현금특송 목사(한울림교회), 축도 박종길 목사(인랜드영락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우리가 세워야 할 부활의 길” (마 28:1-10)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박혜성 목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며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신 주님을 보여주기 위한 감사와 기쁨의 깃발을 세움으로 어둠과 죄악으로 잠잠에 빠져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히 합심기도를 한 가운데

밸리

주님의 부활은 변화의 능력

샌퍼난도밸리교회는 밸리연합감리교회에서 부활절 새벽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사회 류재덕 목사(회장, 밸리연합감리교회), 기도 양수철 목사(에버그린신교회), <오직 예수>(Don Moen 곡)라는 곡으로 밸리연합감리교회 성가대의 특송, 설교 이준우 목사(밸리커뮤니티교회), 연합합창, 특별 기도 김원락 목사(양의문교회), 축도 김성웅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히 참석자들은 ▷북한인권 및 동성애 법안 폐지 ▷한미 대통령 선거 등을 위해 합심 기도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준우 목사는 “기독교 성경을 믿지만 한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벤추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곳곳에

벤추라 지역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는 벤추라교회(회장 최상훈 목사) 주관으로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드려졌다. 설교자로 나선 정준호 목사(리빙스톤한인교회)는 “Jesus! Remember Me!”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며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져 가면 결국 그리스도의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예배는 사회 이상영 목사(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대표기도 반채근 목사(시미벨리한인교회), 성경봉독 조인 목사(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말씀 정준호 목사, 축도 오정택 목사(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예배 전후 시간에는 참석한 많은 성도들이 SB48 법안 수정 발의안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LV

부활, 전하고 선포하자

한편, 라스베이거스 지역은 제일침례교회에서 120여명의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조승철 목사(라스베이거스 교회협의회)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예배를 주관한 목회자들이 연합해 찬양을 불러 큰 은혜를 더했다. 또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미국과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다. 김준형 · 토마스 맥 · 빅터 박 정하나 · 송승민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동차 보험 알선. "전혀 걱정 없이 운전하세요."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샌버나 디노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자

샌버나디노 지역은 샌버나디노교회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를 장대교회에서 오전 6시에 드렸다. 연합예배는 사회 정준호 목사(레드랜드한인교회), 기도 권철규 목사, 설교 김성일 목사(회장, 빅토빌예수마음교회), 현금기도 및 축도 이준준 목사(장대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특별히 이날 동성애 교육 반대를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김성일 목사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전하며 설교를 마쳤다.

SD

주님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그 분으로 인하여

샌버나디노 지역은 샌버나디노교회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를 장대교회에서 오전 6시에 드렸다. 연합예배는 사회 정준호 목사(레드랜드한인교회), 기도 권철규 목사, 설교 김성일 목사(회장, 빅토빌예수마음교회), 현금기도 및 축도 이준준 목사(장대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특별히 이날 동성애 교육 반대를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소망입니다”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김성일 목사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전하며 설교를 마쳤다.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상담필수 8:30AM~7:00PM. www.LAORT.edu.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New York : Forest Hills Tel. 718.261.5800. Chicago : Skokie Tel. 847.324.5588.

갈보리민음-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 통합

이름은 갈보리민음교회, 담임은 강진웅 목사로 결정

갈보리민음교회(담임 박형택 목사)와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담임 강진웅 목사)가 통합했다. 지난 8일 구 갈보리민음교회 본당에서 양 교회의 통합을 감사 드리는 기념예배가 있었다.

갈보리민음교회는 미국교단인 크리스천교회 제자회(Disciples of Christ) 소속 교회로, 박형택 목사가 지난 8년간 시무해 왔다. 교회 건물은 제자회에 소속된 미국 임마누엘처치 건물을 빌려 사용해 왔다.

한편,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는 한인교단인 해외한인예수교장로회(KPCA) 소속으로, 강진웅 목사가 젊음과 부드러움을 앞세운 감성 목회로 리드해 온 교회다.

통합에 대한 안건은 지난해 12월 박형택 목사가 먼저 강진웅 목사에게 제안해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수개월간의 기도과 협의 끝에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 측이 통합에 동의함으로써 전격 성사됐



양 교회 성도들이 통합예배 후 모여 하나됨을 기념하고 있다.

다. 지난 3월 25일에 양 교회에서 공동의회가 열려 안건이 통과됐고, 부활주일을 맞아 양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예배를 드리게 된 것

통합에 앞서 박 목사는 소속교단이었던 제자회에서 탈퇴,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가 소속된 KPCA로 들어가는 수순을 밟았다.

통합된 교회는 앞으로 강 목사가 담임을 맡아 이끌며 박 목

사는 선교목사로 시무한다. 교회 이름은 갈보리민음교회로 결정됐고 미국 임마누엘처치 건물(3300 Wilshire Bl. Los Angeles, CA90010)을 계속 사용할 예정이 정한나 기자

전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마음이 해답

빛내리교회 방문한 김기남 목사 인터뷰



남가주빛내리교회 박용덕 목사(좌)와 김기남 목사(우). 빛내리교회는 예수전도법을 미주에 보급하는 사명을 감당할 예정이다.

-예수전도법이 한국에서 선풍적 반응을 얻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가?

왜냐면 전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도에 관한 수많은 프로그램과 세미나가 있었지만 대부분 지식 훈련에만 그치거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정도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전도법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단순한 진리에 전도를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시킨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현재 임상 실험 결과 많은 소형교회에서 두배 이상의 부흥이 이뤄지는 등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데.

쉬운 예를 하나 들겠다.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영어를 6년간 공부해도 외국인 만나면 영어 한마디를 못한다. 왜 그런가? 단순히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다. 어떻게 영어를 하는지 몰라서다. 이것은 "어떻게"의 문제다. 전도는 어떤가? 교회를 몇 년 다녀도 불신자를 만나면 말을 건네지 못한다. 이것도 "어떻게"의 문제다. 이 전도법은 이것을 가르쳐 준다. 먼저는 전도자가 전도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면 무엇이 필요할까?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전략에 맞는 전도의 도구

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단순히 전도법을 전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각 교회 안에 전도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전도법을 가르쳐 주고, 전도에 필요한 전략과 도구를 재생산 해 내는 운동을 하고 있다.

-전도대학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전도대학은 각 교회 안에서 전도에 몰입하는 씽크탱크이자 운동본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회가 머리가 아닌 몸으로 전도를 배우고 체질 자체를 전도하는 교회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미주 지역의 반응은 어떤가?

한국에서는 1년만에 1백여개 교회에 보급됐고 500여 목회자가 훈련받고 있다. 미주의 경우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 큰 희망을 갖게 됐다. 남가주 지역은 빛내리교회가 주축이 되어 각 교회에 예수전도법을 보급해 목회자들에게 전도의 전략을 제공하고 리더를 양육하는 역할을 해 주기로 했다. 더 나아가 한인뿐 아니라 타민족 전도에도 이 전도법이 널리 보급되길 기도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전도 강요 안해도 불신자 전도되는 이 방법!

예수전도훈련원장 김기남 목사 초청 세미나 열려

남가주빛내리교회(박용덕 목사)가 '예수님 마음' 전도법으로 한국에서 큰 효과와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김기남 목사(예수전도훈련원장)를 초청, 세미나를 3일부터 4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OC교협, OC목사회, New Spirit Movement, OC전도협회가 후원했다.

이 세미나에는 60여명의 교역자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기남 목사는 둘째날 오전 전도대학 운영 매뉴얼에 대해 강의했다. 전도대학은 예수님 마음 전도법을 개교회에 적용하는 단계로, 예수전도훈련원은 교회에 전도대학을 세우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김 목사는 먼저 전도대학의 목적과 마인드에 대해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전도대학은 그 목적을 교회 부흥에 두지 않고, 성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있다"며 "그 이유로 교회 부흥은 사람이 예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또 숫자에 지나치게 목표를 두면 지치고 힘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목사는 "절대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 하지 말라"며

"그러나 오려고 하는 사람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 이유로 김 목사는 △교인들에게 전도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기 때문 △실적 위주로 전도를 진행하면 훈련자가 지나친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쉽게 지치기 때문 △자칫하면 전도자 간의 경쟁으로 인해 팀 전도로 이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김 목사는 "전도대학의 목적은 훈련"이라며 "훈련의 목적은 성도의 변화가 핵심이다. 전도자를 훈련하면 △영혼에 대한 마인드가 생긴다 △교회에 대한 헌신자가 된다 △성경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 △성숙한 인격자가 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전도대학에서 목회자를 훈련할 수 있다"며 "그러면 현장 중심에서 본질 중심으로 목회의 마인드가 바뀌고, 숫자에 관계없이 목회가 행복해지며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기남 목사는 목회자의 준비, 전도대학 운영의 실제, 현장 훈련 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김 목사는 "영혼이 마음을 열 때 기회



김기남 목사가 전도대학의 목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를 잡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낯시를 할 때 마지막에 낯아채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면서 영혼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신도 생활 7년, 목회자 생활 7년을 통해 이 전도법을 만들었다는 김기남 목사는 이 전도법의 핵심에 대해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전도자를 훈련

시켜서 메시지를 전해 불신자들이 복음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장점은 원리대로 하면 전도가 된다는 것이다. 전도대학을 도입한 작은 교회가 1-2년 훈련 후에 배가 성장한 곳이 많다. 전도대학을 통

해서 전교인을 전도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 매뉴얼이랄 수 있다. 참여자가 5명 이상이 되면 개교회에서 전도대학을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 칼라 전문점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 up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잘라낸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LA 최고의 헤어-머리관리 스타 2층 **일서+웨스턴 코너**

신도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

누가복음 24:13-35

장재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13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14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 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16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 하거늘 17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나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뇨 19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러니 20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22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밀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같이 하시니 29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았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여 들어가시니라 30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31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시 아니하시느니라 32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35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1. 엠마오로의 동행

신도(信徒)란 믿는 무리들이라는 뜻이고 동행(同行)이라는 것은 같이 걸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엠마오 마을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많은 이적과 기사를 목격했고 예수님의 무한한 가능성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영적 회복보다는 현실적인 로마제국의 압제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정치적 능력의 지도자로 기대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숱한 이적과 기사

를 보아왔음에도 그들에게는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 형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만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자기들이 살아온 고향 엠마오로 25리쯤 되는 길을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내려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기대했는데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장로들이 음모를 꾸며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며 절망의 무거운 다리를 고향으로 옮겨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들 옆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저희 눈이 알아보지 못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가 서시면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을 걸으면서 힘없는 소리로 주고받는 대화가 무슨 소리냐?" 그때 그중의 하나가 슬픈 빛을 띠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간에 되어진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는가"라고 예수님께 핀잔을 주면서 그렇게 화풀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짝 다가서시며 "대체 무슨 일이나"고 물으시니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죽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현재의 식민지 생활에서 구원해 줄 사람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고 실망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미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의 마음만을 안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불신앙으로 자욱에 떨어지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신앙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아같이 애태우십니다.

2. 엠마오에서의 드러내심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절망에 폭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일러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왜 듣기 바쁘게 믿지 못하는지입니다. 구약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동정탄생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의 구주가 되실 것을 많은 선지자

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성령으로 선포하게 해 오셨는데 왜 못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능력의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영적 소망을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돌리키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죄 값을 대신 벌 받으러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왜 못 믿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노라" 하고 운명하신 이후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되살려 내심으로 그가 영생의 생명부활을 이루어 낸 첫 열매이며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며 믿지 못하는 것인지를 에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부탐과 수고와 희생과 고난을 다 참고 견디어서 이겨낸 다음에 우리도 생명부활로 되살려 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처신 과정과 우리가 거처야 할 과정도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다 들은 후 이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저들을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상이 나왔고 예수님께서 식사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줍니다. 그 떡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들의 영의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모습으로 자기들 식탁에 함께 앉아 계심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떡을 떼실 때에 저희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심령에는 절망이 사라지고 부활신앙의 믿어지는 믿음에 자리를 박차고 추복기도 받아놓은 발상을 먹지도 않고 일어나서 성령의 충동을 받아 25리 무거운 발걸음으로 절망의 탄식으로 내려온 그 길을 신나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단숨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3.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심

부활신앙의 믿어지는 믿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사람은 육신의 입장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고 세상일에 매여 부활소식 증거하는 일을 지체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함께 울 때에 성경을 풀어 말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계속 말씀을 듣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비록 그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얻지 못하여 절망과 탄식으로 떨어져 나가는 길에 있다 할지라도 서둘러 찾아 가시어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 증거하시고 이제부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져서 영생의 복음, 부활의 확실한 증인으로 그 소식을 전하도록 붙들어 쓰심을 여러분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불같은 감동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 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서둘러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절망이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다른 많은 사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만나 주셨더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간절한 신도라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부활소망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려고 계속 동행하시는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간절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생활 현실 속에 찾아 오시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벅찬 소망을 일깨워 주시고 부활복음의 확실한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체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수요일 서부 오후3시반 / 동부 오후6시반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6시 / 동부 오후9시
AM15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서복음선교회 총재. 선교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서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찬양 인도자 클리닉

찬양 인도에 대한 어려움이나 한계를 경험하고 있으시거나 좀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을 배우고 알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LA Worship Church에서 "찬양 인도자 클리닉" 을 준비 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6개월 과정으로 찬양 인도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히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찬양 인도자로서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알아야 할 성경적 지식 뿐만 아니라 찬양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담임 목회자와의 소통, 악기팀 관리와 음악적 코디네잇까지 다양하면서도 세심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루게 되며 매주마다 자신의 사역을 리뷰하므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나가고 서로의 사역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역자로서 매마르기 쉬운 사역 현장에서의 영적 감각을 성령의 은혜로 적시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간 : 2012년 4월 15일부터 약 6개월간 매주일 저녁 6시
 장소 : LA Worship Church (2818 W. Pico Blvd. LA, CA 90006)
 대상 : 현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신 분들 우선, 그리고 찬양 인도법을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모집 인원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 : 6개월간 \$350 (분납 가능) 매주일 저녁 식사와 교재비 포함.
 문의 : 변경진 213) 270-3728 (부재시에 메세지 남겨 주세요.)
 bkjin74@hanmail.net

강사: 변경진 목사
 1992년부터 찬양인도를 시작하여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에서 훈련과 사역을 감당했으며 2000년에 도미하며 교회 내의 찬양팀과 외부 찬양 사역을 2012년 현재까지 감당하고 있으며 "LA Worship Church"의 담임목사이면서 LA다운타운에서 진행중인 "H.O.W" 모임에 찬양인도와 설교로 섬기고 있습니다.

for His Kingdom
LA WORSHIP CHURCH



헨델의 메시아로 맞이한 부활절

부활의 기쁨과 감격, 찬양으로 노래해

지난 8일 부활절을 맞아 교회마다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리토스장로교회(김한요 목사)에서 예수의 생애와 고난을 그린 '헨델의 메시아' 칸타타 무대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된 음악회는 총 208명에 이르는 이 교회 합창대원들의 무대로 꾸며졌으며, 객석은 8백여 명의 성도들로 가득 찼다.

김한요 목사의 오프닝 메시지로 막이 올랐고, 이어 10,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iNCounter 콰이어가 '주님께 감사해'를 영어와 한국어로 각각 불러 객석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본격적인 무대는 이 교회 1,2,3,4부 찬양대가 맡아 각각 곡을 나눠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밖에 남성 중창단을 비롯해, 테너 전승철, 소프라노 이지은, 베이스



헨델의 명곡 메시아 중 (주의 영광)을 세리토스장로교회 성도들이 연주하고 있다.

장상근, 소프라노 박아영 등이 각각 나서서 아름다운 선율과 품격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찬양분과위원장 이희철 장로는 "메시아의 탄생과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는 취지에서 이 음악회를 마련했다"며 개최 의의를 밝혔다.

정한나 기자

부활절 칸타타 '십자가상의 칠언' 은혜 가운데



글로벌이찬양단이 세계대교회에서 십자가상의 칠언을 연주하고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던가? 글로벌이찬양단 주최로 '십자가상의 칠언' 공연이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 세계대교회에서 있었다. 공연은 드림오케스트라와 드림유스합창단, 세계대교회 찬양단이 함께했고, 소프라노 지경, 테너 은파리, 바리톤 진영 장이 함께 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 곡은 프랑스 작곡가 '드보와'(Theodore Dubois)의 곡으로 1번 서곡부터 14번 '여섯시경 암흑이'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일곱가지 말씀을 가지고 작사 작곡한 것이다. 공연이 끝나자 지휘자 다니엘 석의 요청에 의해 청중들은 모두 기립해 지휘에 맞춰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합창하기도 했다.

음악회에 앞선 예배에서 설교는 송정명 목사가 '삶 중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전했다. 송 목사는 "예수께서는 가장 사랑하고 믿는 제자들에게까지 배반을 당하셨다"며 "여러분이 이민 생활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작은 것이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죽고 다시 사셨던 주님같이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길 바라고, 오늘 찬양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길 바란다"고 했다. 사회는 총무 김원탁 목사가 맡았고, 헌금기도는 양태환 장로(세계대교회)가 맡았으며, 축도는 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증경회장인 김화익 목사가 맡았다.

빅터 박 기자

CRC한인협의회 주최로 중국선교 후원 음악회 개최돼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CRC(북미주개척교회)한인협의회 총회 주최로 지난 8일 부활절 저녁 7시에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에서 중국선교 후원 음악회가 개최됐다.

회장인 박장호 목사는 "5월초 제29차 총회를 '21세기의 선교 비전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게 될 예정으로 목회자들이 총회에 참석해 중국 현지에서 목회하는 교단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고 또한 도전을 받고 올 예정이다"라고 공언했다.

음악회는 서울 종신대 교회음악과 동문 중창단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로 시작해 마지막 연합 합창단의 '할렐



CRC한인협의회가 주최한 중국선교 후원 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루야'로 끝났다. 이 외에 소프라노 정원혜, 김지연, 메조소프라노 원순일, 바리톤 장상근이 출연했고 LA크리스천시어즈, 소노로스시어즈, 포이에마여성합창단,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찬양대가 참여했다.

개회기도는 박장호 목사가 맡았고, 헌금기도를 은혜방주교회 김동일 목사가 맡았으며, 축도는 남성수 목사가 맡았다.

한편, CRC는 16일 월요일부터 3일간 CRC한인협의회 주최로 교단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ANC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에 모여 국가와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회 서밋 행사를 준비 중이다.

빅터 박 기자

"예배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 승리"



피종진 목사

벤엘장로교회(변영의 목사)가 2012년 고난주간에 피종진 목사를 감사로 초청, 부흥성회를 5일부터 7일까지 개최했다. 6일 저녁에 피 목사는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겔36:26-28)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피 목사는 "하나님의 조명을 받

벤엘장로교회 부흥회 개최

아서 미래를 계획하고 힘차게 전진해 나갈 때 많은 은혜가 내릴 것"이라며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고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이 승리한다"며 말씀을 시작했다. 피 목사는 "혈기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며 "분과 혈기를 제거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하며, 무엇보다 마음의 웃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 목사는 "육신의 불행은 염려다. 염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시키고 믿음을 약하게 한다"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맥 기자

장인찬 장로 美대한신학대학교 명예박사학위 받아



장인찬 장로

장인찬 장로가 최근 제16회 후기 미주대한신학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장 장로는 1918년 평안북도 태생으로 오산중고등학교와 일본동경중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주)인창실업 대표이사, 한국 성결대학교 5대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장도원 장로(포에버21 사장)의 부친이기도 하다.

선승민 기자

아름다운교회 부활성극 "원점"

수준 높은 공연으로 부활절 기념해



아름다운교회가 창작 부활성극 원점을 무대에 올려 큰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예수를 믿지 않던 한 대장장이가 있었다. 그의 직업은 못을 비롯한 다양한 철물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날 자신이 만든 못에 한 사람이 찢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된다.

아름다운교회가 성금요일을 맞아 무대에 올린 창작 부활성극 "원점"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인간적인 사랑과 권력, 돈 때문에 패망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그려 내고 동시에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고 있다.

아름다운교회 한 성도는 "이 성극은 아마추어들이 프로의 근성으로 만들어낸 수준 높은 작품"이라며 "스티브 정 집사의 코믹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리얼한 연기, 구자관 집사의 청중을 리드하는 박진감 넘치는 모노드라마, 김혜량 집사의 세련되고 현실감 있는 대본, 서경옥 집사의 디테일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연출, 어느 무대에 올려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었다"고 평가했다.

빅터 박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

- 회장: 김영대 목사
- 수석부회장: 김영모 목사
- 총무: 허귀암 목사
- 회계: 양석용 목사
- 서기: 김수재 목사



회장: 김영대 목사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롬 6:5)



담임목사: 추영욱

- 주일예배 오전 11:45
- 주일예배(EM) 오전 11:45
- 아동부예배 주일 오전 11:45
-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남가주 안디옥교회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0 Tel:714-638-9055 www.scantioch.com

31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신제품 출시 기념 연장 세일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7병을 100불에 +tax

고객 상담 후 알파 구연산 섞어 드림
(알파 구연산 한정 세일)

마감일 4월 30일까지

Made in USA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각종 위장병에
특히 좋은
알파 구연산!!



30btl/ea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50btl/ea +tax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100불 이상 구입시에 우선 한 병만 사용해 보세요. 어떤 질병일지라도 한 달 정도면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일에 본인이 느끼기에 효과가 없다면
사용하시던 병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고 나머지를 가져 오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100% 환불해 드립니다. HQ구연산으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께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땀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검버섯이 구연산 복용 후 한 달이 지나 없어지거나 약해짐.
- ★ 비염,코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나는 다른 제품이 없어도 구연산만 있으면 건강하게 산다.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 ★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 ★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비염이나 콧물에 고생했는데 구연산 3개월 먹은 후 회복됨.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맛없고 맛있고 맛도 좋음.
-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구연산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구연산 장기 복용 후 눈의 시력이 몰라보게 좋아짐을 체험.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비디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막힌 체험사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해 주세요.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음식물의 완전 흡수를 도우며 자연치유력에 또한 최대한의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인디오텐신이라는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당뇨병은 인슐린과 그 반대 역할을 하는 효소 간에 밸런스가 깨져 생기는데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예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히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발목 무릎,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유산이 체내에 축적되고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인체 내 젖산 등의 피로물질을 분해하여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며 자연치유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준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며 면역능력을 증진시킨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강한 체질,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영혼육 구하는 다양한 사역으로 주님 사랑 전파

북한 어린이 돕기 및 의료 선교, 조선족 어린이 교육 등 괄목할 발전 이뤄



SAM Care International (샘복지재단, 국제대표 박세록 장로)의 자문위원(손원배 목사, 민봉기 목사, 박길성 목사, 조웅원 목사, 문명준 목사, 김학수 목사, 강경녀 북가주 주부장은 지난 3월 20일 산호세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샘복지재단과 박세록 장로는 오클랜드 소재 크로스선교회와 전연 관계가 없음을 알리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샘복지재단의 지속적인 사역을 알려 더 이상 혼동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우측 사진)

1997년 샘복지재단(SAM Care International)이 미국과 한국에서 창립된 이후에 이제는 미국, 한국, 호주, 중국, 그리고 영어권까지 자체 본부를 가지고 그 현지법에 따라 법인을 운영하며 한 개의 단체로 공동 목표를 위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국가에 본부를 두는 구조는 북방선교를 위하여서는 가장 알맞아 "전천후 사역"을 감당하기에 최선입니다. 북한이 자체 사정에 따라 어느 때는 재미 동포들을, 다른 때에는 한국 사람들을, 또 때에 따라서는 호주 또는 미국인들만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른 본부에서 사역을 이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2000 어린이 겨울나기 돕기 운동은 중국 현지 관리들이 2000 세트의 겨울나기 물품과 6만 봉지의 영양 과자를 직접 전달 분배하고 있습니다. (현

지의 안전과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중국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1만명이 넘는 기도회원과 후원자들이 유럽까지 세계 각국에서 모였고, 약 100개의 교회들이 각처에서 돕거나 공동 사역을 하고 있는 NGO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표 박세록 장로는 24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 전하기와 생명 살리기를 위하여 목숨 걸고 다니면서 집회와 강연, 그리고 모임들을 하면서 쉴 틈 없이 달려 왔습니다.

자체 개발한 특별영양치료식품 (SAM Care RUTF)으로 북한 내부 사역을 할 것입니다

한 달 이내에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세계소아과학회에서 팜공을 주원료로 하여 특별히 제조한 치

료 식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팜공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우리 자체의 성분으로 부작용이 없는 새 제품을 한국의 굴지 식품회사 개발팀과 함께 제조했습니다. 일단 생명을 살린 어린 아이들과 5세 이상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특별 영양과자(Nutritional Cracker)를 계속 공급합니다. 4월에는 우리의 의료팀들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고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번 진료 방문에는 한 콘테이너의 의료품, 의약품, 그리고 식료품들을 동시에 전달할 것입니다.

(신)단동병원의 개원과 현대식 건강검진센터 설립

2011년 10월 (신)단동병원을 단동 시내 한복판으로 건축, 개원하고 지금은 중국에서 유일무이한 한국식 현대 건강검진센터를 건설 중

(2개월 이내에 완성)이고, PAC 시스템을 완성하여 서울의 메디칼센터와 직접 연결이 되어 볼 수 분 이내에 한국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으로 최고의 의료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병원이 자립하고, 그동안 병원 복지를 통하여 무료봉사를 해 오던 환자들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사랑의 왕진버스(이동 진료 버스)를 타고 한국의 경기도보다도 넓은 강원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진료를 하며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깨우치는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2011년에는 연 35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직접 치료한 바 있습니다.

민들레민족학교 운영

강변 지역에 민족학교를 운영하며 100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와 언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생 수가 배가 넘

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이 학교를 통하여 강원도에 있는 북한 내부의 학교와도 자매결연이 되어 도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11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며 생명을 살리는 구제와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제자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제는 이 영혼들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국의 정규 신학교와 연결이 되어 1년 과정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고 사역이 커지고 또 북한과 중국을 상대한다는 가장 힘든 환경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일어났고, 이 틈새속에서 미국의 일부 한 부분이 떨

어져 나가는 가슴 아픈 일로 지난 6개월 동안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오히려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새 힘으로 더 달려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믿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많은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목숨이 다 하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후원 및 문의 : 714-870-1101
SAM Care USA 최상영 본부장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www.gstcedu.com
목회학석사 (M.Div.) 신학석사 (S.T.M.)
목회학박사 (D.Min.) 신학박사 (S.T.D.)
SEVIS인가 대학, 자체 1-20발행
ESL 프로그램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샘복지재단이 강원에서 운영하는 민족학교인 민들레학교. 이곳에서 100명의 어린이들이 한국 역사와 언어를 배우고 있다.

BAK KUNG 白 宮 KOREAN B.B.Q
백궁은 최상급의 고기와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런치 스페셜 \$9.99
고기무제한 All You Can Eat \$6.99 소주 1병 \$6.99
A \$9.99 Lunch Only 11am-5pm 차돌 소스삼겹살 소불고기 닭불고기 매운양념닭갈비 오징어 쭈꾸미
B \$13.99 차돌 소스삼겹살 소불고기 닭불고기 돼지고기 돼지껍데기 매운양념닭갈비
C \$16.99 오징어 쭈꾸미 곱창 대창 막창 닭뿔통
D \$22.99 갈비탕 콩비지찌개 육계장 내장탕
B+ 돼지발사구이 L양념갈비 L생갈비 허밀구이 왕새우구이(2인/10pcs) 스키구이(함골)
C+ 꽃살(2인/10 pcs) 양념양갈비 왕갈비 양줄구이
3700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19
BAK KUNG KOREAN B.B.Q 323.734.9292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n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Solomon University, SU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 (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487-737 / www.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신학.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3130 Wilshire Blvd #4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9800 / Fax: 213-384-7898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직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섰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i.org

Solution for Tomorrow

LASERVISION WORLD
 www.laservisionworld.com

부활절 특별행사를 위한 무선마이크 조명 스테이지 렌탈해 드립니다

Customized Solution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시스템 시공, 감리, 교육 및 정기점검까지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 Total System Integration

*최신 HD 레코딩 장비를 갖춘 넓고 조용한 Recording Studio를 기반으로 한
 - Music Production
 *최신 HD 영상 장비를 갖춘
 - Digital Film/Video Production
 *최신 장비로 무장한 라이브 음향 영상 조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 Live Production 까지

Laservision World에 오시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전문 음향, 영상, 조명의 Total Digital Custom Solution을 제공 해드립니다.

Laservision World만이 드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

1. 풍부한 방송 System 시공 및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2. 2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자라온 인정된 회사입니다.
3. 음향 / 영상 / 조명에 관한 토털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경비와 시간을 최소화시켜드립니다.
4. Supervising System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System Integration을 진행합니다.
5.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하여 드립니다.
6. 에너지 절약 디자인을 최우선시 합니다.
7. 시공 후 Training과 Service 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8. 일에 필요한 License와 책임에 관한 Insurance & Liability를 갖고 있습니다.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나꼼수 김용민 후보

“한국교회 범죄집단” 막말

기독교자유민주당(기독당)이 11일 총선을 앞두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막말’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독당은 이 선언문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애국가를 금지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이(4.11) 총선에 참여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혼돈시키는(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크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용민(민주통합당 노원갑 후보)은 주한미군을 장갑차로 깔아 죽여야 한다고 하고 미 국무장관을 성폭행하여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최근 논란이 된 그의 ‘막말’들을 언급했다. 또 “김용민이 ‘누가 정권을 잡든지 한국교회는 범죄집단이다’며 적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라면서 “한국의 5만여 교회와 10만여 성직자를 멸시한 행위가므로(김용민 후보가 스스로) 회개하고

국회의원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후보를 전락공천한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김용민을 공천한 것은(민주통합당 역시) 그의 주장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독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종북성향을 꼬집기도 했다. 기독당은 먼저 민주통합당을 향해 “친북 종북세력의 대부 백낙청과, 평양 개신문 앞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른 범민련 소속 노수희를 앞세워 친북 정권을 세우려는 의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과거 북한의 지하조직원으로 암약하면서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5명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내세운 행위는 국회를 김일성의 추종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독당은 이 같은 양당의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 사퇴 압박에 금식기도 중 ?

교회와 노인, 여성에 대한 ‘막말’로 사퇴 위기에 놓인 김용민 후보가 영동하게도 ‘금식기도’를 사태 해결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는 부활절이 지난 9일 현재 3일째 금식기도 중이라고 한다.

김 씨는 선거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소명을 받고 정치에 나왔다”며 “외부에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곡해해도 저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용서 속에서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그 분은 저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신음 소리 하나까지도 들어주셨다”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저는 ‘한국교회가 일종의

범죄집단이고 적결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았다”며 “한국교회 내 일부 교권세력이 오히려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이같은 소식에 교계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씨의 아버지인 김태복 원로목사(통합측 흥익교회)는 사모와 함께 부활절인 8일 김 씨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한국교회를 능멸한 김 씨를 꾸짖기는 커녕 안수기도를 해 주기도 했다. 그는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아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으니 기도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흥익교회의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를 이유로 불통 상태다.

이대웅 기자

◆ “교회 잊어라” 기독교 폄훼에 美 교계 분노

부활주일에 “기독교인들, 교회 떠나라” 논란

미국 뉴스위크가 지난 부활주간 발행호 표지 기사로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주장의 기사를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회는 잊고 예수를 따르라(Forget the Church, Follow Jesus)’는 도발적 제목의 이 기사는, 진보주의 기독교 작가이자 정치 논평자인 앤드류 설리번(Sullivan)이 작성했다.

그는 이 기사에서 교회의 정치화에 가장 큰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예수님은 비정치적이었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권력과 정치에서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한다”며 “오늘날 교회는 정치에 너무나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동떨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평소 정교분리의 열렬한 지지자를 자처해 온 그는 “토마스 제퍼슨의 더 간결하고, 더 순수하며, 비정치적인 기독교의 비전은 21세기 이후 미국 현실에서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설리번은 이외에도 복음주의 기독교 내 변영복음주의 대표되는 물질주의와 가톨릭 교회 내 관료주의를 맹비난했는데, 특히 후자에 관해서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기 위한 국제적 음모”라고까지 표현했다.

설리번의 문제 제기는 적절한 대안 없이 극단적 결론으로 치달았다. 그는 “기독교는 정치와 성직자들, 그리고 부유한 복음전도자들에 의해서 파괴됐다”며 “기독교인들은 모두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대안 없는 극단적 주장 비판

현재 미국 교계는 이 기사가 비판한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교회를 떠나라는 식의 주장은 건전한 대안이 아니며 교회에 대한 공격에 가깝다는 데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담임목사이자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릭 워렌(Rick Warren) 목사는 기사에 대해 “모욕적”이란 한 마디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설리번의 트위터에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가?”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보수주의 유명 목회자이자 블로거인 앨런 러드닉(Rudnick) 목사는 “나는 설리번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 묘사했다는 점이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에 대해 지적했다는 점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한대로) 우리는 교회의 역기능과 정치적 증오나 혐단을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설리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전적인 물이해를 갖고 치유책 없는 비판만을 내놓았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회 안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불가능!

기사가 주장한 바대로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신학적 반박도 일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등 유명 연예인들이 주장하며 젊은 이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사상이기도 하다.

기독교 언론인이자 신학자인 브렛 맥크래켄(McCracken)은 “예수님은 기독교인 개개인을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닌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다”며 “교회



미국 뉴스위크 4월 9일자 표지. 교회는 잊고 예수를 따르라(Forget the Church, Follow Jesus)며 예수님을 전형적인 힙스터(hipster, 진보적 사상이나 유행을 좇는 젊은이)로 묘사해 냈다.

는 성경적 개념이며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우리만의 즐거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거기에 어떤 책임감도 신앙의 훈련도 없다”고 설명했다.

탈북대학교 신학교수인 에릭 톨네스(Thornes)도 “설리번이 제시한 교회의 모습은 결국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비윤리적·반교회적 교회일 뿐”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정치참여 왜 비판? 기독교인도 목소리 내야

톨네스는 한편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문제에 간여하는 것을 무조건 비판해서도 안 된다”며 “비록 예수님이 오늘날의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하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반해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현정 기자

당뇨, 고혈압, 고지혈, 부인병 및 힘든 질병에서 빠르게 증상 개선시키는 청 한의원

대단히 놀랍고도 빠른 효능의 특수침술, 특수진맥

이번주 강의: 당뇨, 고혈압의 합병증에서 빠르게 대처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심각하고도 위험한 상태에 이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초기에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에만 의존하다 눈이 안보이거나 신장투석 다리절단과사, 심장병, 뇌경색 중풍 치매등으로 고생하다 무척 힘들게 되는데 어느정도 약을 줄이거나 벗어나야합니다. 왜냐하면 약은 빠른증상개선으로는 좋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몸의 중요장기인 뇌, 눈, 심장, 신장 및 손, 발등 중요한 부분의 피순환이 안좋아져 무섭게 망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나이가 40살 정도인데 당뇨가 생긴지 2년정도인데도 눈이 안보여서 본원에서 치료 3개월후 눈이 어느정도 보이게 됐고 당뇨수치가 어느정도 잡혀서 안도의 숨을 쉬지만 당뇨 합병증을 생각보다 무척 힘들고 그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다.

본원에서는 자연의 요법으로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서 수치가 어느정도 정상이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당뇨, 고혈압은 평생토록 관리 조절을 잘해야합니다. 재발할수있기 때문에 완치는 안되지만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야 그리고 줄여서 합병증에서 벗어나야합니다. 본 한의원에서는 특수침술과 특수침술을 통해서 오래된 통증을 믿기힘들 정도로 빠르게 수 분 정도에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됩니다. 아울러 약해진 장기의 균형을 도와주어 합병증 및 통증에서 벗어나게끔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도와드립니다. 올바른 가르침, 준비된 생활로 건강도 올바르게 서 있어야합니다.

청 한의원의 상상하기도 현실의 세계에서 믿기 어려운 빠른효과의 특수침술은 과연 무엇인가..

- 1.예) 70대 바라보는 LA인근에 사는 김 선생은 허리통증으로 너무나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본원에 와서 침을 맞는지 불과 2~3분도 채 안되서 그 즉시 그 괴로운 통증이 사라지니 정말 믿을수가 없다. 신기하다.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 상황을 얘기한즉 아무도 믿기 어렵다 말한즉 3주가 지난 이후에도 통증이 없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 2.예) 50대 남성으로 오펜자카운티에 사는 강 선생은 오십견으로 팔을 들거나 움직일때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고 한 6개월 정도 고생으로 여러 별별치료를 다 했으나 계속 아파서 본원에 와서 치료후 5분도 안되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그 즉시 움직이니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있나 믿기지않아했고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 3.예) 70대의 할머니 엉덩이부터 멍기고 발끝까지 아파서 좌골신경통 및 알수없는 통증으로 2년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다 정말 남들이 2~3분 정도후에 통증이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그냥 방문 그런데 5분도 안되서 그 오래된 통증이 사라지니 이것은 상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감탄하시며 뒤돌아 가면서 감사해하는 모습이었다.
- 4.예) 젊은 학생이 6개월정도전에 다리를 다쳐서 심하게 아파서 붕대를 감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온갖치료를 했으나 큰 진전이 없어 통증을 호소하는바 침을 놓은지 5분도 안되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무릎을 움직이니 어떻게 이런일이 이 세상에 있다니 말하면서 Amazing이란 말을 계속 연거푸 말하고 있었다.
- 5.예) 60대 후반의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배부위의 통증으로 무슨 큰병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내원한바 침 시술후 3분도 안되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없어졌으니 남편도 지켜보면서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가 힘들고 상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너무나 감사해했었습니다.
- 6.예) 80대의 할머니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로 여러 알약을 복용하던 중 내원한바 본원에서 3개월 정도 치료후 모든 알약을 다 끊고도 수치가 정상이 되니 가족도 놀라와하고 병원에서 믿기 힘들다고 의아해 했다고 말하면서 그저 주위사람들이 놀랍고도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 7.예) 4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당뇨를 앓은지 2년정도인데도 눈이 안보이고 Insulin 70Unit맞으면서도 400~500정도 당수치가 나오고 몸은 너무나 말라서 보기가 힘들정도이고 발바닥은 가죽처럼 찢겨져 있었고 살을 포기한 모습으로 내원한바 본원에서 3개월 남짓 치료후 눈이 어렴풋이 보이면서 Insulin 40Unit 맞으면서도 당이 100정도 내려오고 몸에 살이 붙으면서 발바닥도 보드라워져서 이 기쁨은 천하를 바꾸어도 누릴수 없는 행복이라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 절호의 기회!
놀라운 당뇨 신선단 2병 사면 2병 FREE!
당뇨병에 희소식!!

왜 당뇨신선단이 좋은가?

더 자세한 사항은 www.shinsundan.com을 참조
24시간 주문전화 714.636.1412

Coupon
당뇨, 고혈압, 고지혈, 복부비만 프로그램
50% off 4/30/2012까지

청 한의원 714 636 1412 (24hrs) 714 349 7995 (213) 385-5833
9355 Chapman Ave. #108 Garden Grove, CA 92841 3003 W. Olympic Bl. #201, LA, CA

부활! 그 놀라운 은총!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교회

한국의 어느 과학자가 액체가 고체로 변화하는 과정의 신비를 풀었다 한다. 무슨 이야기이고 하면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사실과 함께 이런 과학적 발전이 과거 상상 속에만 있었던 냉동인간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는 소식도 전해진다. 예전부터 현대의학의 한계로 불치의 병을 앓는 사람들을 냉동 상태로 보관했다가 후에 의학이 더 발달하면 녹여서 치료하여 살게 한다는 것이 냉동인간의 스토리였는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수많은 생사람들이 산 채로 얼음 속에 들어가 잠을 자며 부활 아닌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 나를 살고자 하는 절박함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그 모습이 썩 아름다워 보일 것 같지는 않다.

이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의 부활의 모습은 얼마나 산뜻하고 멋있는지! 주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다. 그것은 그야말로 형극의 길이었지만 주님은 결코 죽음을 두

려워 하지 않으셨다. 왜? 이유는 간단했다. “그 분은 다시 부활하실 것이었으므로.”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십자가의 고난 후 삼일 뒤 부활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주님은 거듭거듭 삼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님이 무덤에 누워 계신 것은 삼일 뿐이었고 반면 부활은 영원하다는 사실이다.

이 놀라운 부활을 산 채로 냉동실에 누워 기억 없이 미래를 기다리는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즉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의 너의 쓰는 것이 무엇이며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누리려면 돈 좀 못 벌면 어떨 것인가? 명예 좀 없으면 어떨 것인가? 그러나 이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그런즉 2012년 이번 부활절에는 아직도 이생애 매여 종 노릇 하는 내 이웃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더 힘써 나누자. 그래서 얼마나 될지도 모를 삶의 연장을 위하여 기억 없이 얼음 속에 잠자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날까지 항상 기뻐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자.

그리고 2012년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자.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예수 부활은 예수 믿는 이들의 미래 부활을 보여주는 대사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굳게 닫힌 무덤의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영광의 광채를 덧입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육체는 영광스러운 육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체는 병과 사망에 처하는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강건한 육체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전 15:20)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 계속하여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미래 부활을 보여주

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부활이자 주 안의 다른 형제, 자매의 부활입니다. 사망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두번째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잠자고 있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감람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고전 15:23).

성경은 마지막 부활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예표가 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는 뒤이어서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만 남겨 놓지 아니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성도에 관련된 것이지만, 사망의 부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타락한 천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하지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되고, 악한 천사와 같이 불못에 빠져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세상은 선과 악이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온 인류가 부활하여 양과 염소가 나뉘듯이 나뉠 것이며, 의인은 영생에 악인의 영벌에 처하여 질 것입니다.

AYEKA(아예카)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얼마 전 아주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한 분식점에서 일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 현대화된 음식점에서 저는 여러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분주하게 테이블을 오고 가며 음식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해 보는 일이라서 그런지 서툴기 그지 없었습니다. 노인들 세 분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주문을 받았습

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음식 이름을 들었는데 꿈이라서 그런지 도무지 기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 주방장에게 말하려고 갔는데 주방장이 종이에 적어 오라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허겁지겁 주문 전표 용지를 찾느라고 여기 저기 뒤지다가 간신히 전표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문 받은 음식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손님에게 가서 주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30분이나 지났습니다. 걱정스러웠습니다! 몰래 쪽문으로 그 노인들을 바라보니 늦게 나오는 음식 때문에 이미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는 이 기분 나쁜 꿈을 박차고 깨어났습니다. 새벽기도회에 갈 시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규범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책이 탈무드(Talmud)입니다.

거의 경전에 비유가는 이 권위있는 책 속에는 이런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짧고 의미있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평생 동안 지속되는 물음은 무엇인가?” 정답은 “아예카(Ayeka)”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Where are you?)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숲 속에 몸을 숨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첫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

니다. 성경 원전에 보면, 여자는 선악과를 따 먹으라는 뱀의 유혹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과일에 손을 댕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가 먹으라는 말 한마디에 아무 생각없이 뱀를 주워 먹습니다. 남자라는 동물이 원래 다 그렇습니다. 갈비가 빠져서 그런지 쓸개 빠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세기3:9)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담은 비로서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존재가 아니라, 땀땀

이 서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예카”라는 질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 계속 흘러갑니다. 동생을 죽이고 숨어 버린 가인에게도, 욕심 때문에 남몰래 전리품을 숨겨 버린 아간에게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 수행 선비의 말바탕에 몸을 숨긴 요나에게도, 그리고 박해를 피해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려고 아리나 가도를 급히 걷고 있던 사도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아예카”를 물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단지 인간의 책임있는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예카?”(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짧지만 이 진지한 물음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멤

지사망 :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행 4:33)**

담임목사: 최운형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EM)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213)388-1927 / 213)388-2105

회장: 양승걸 목사

리송하리로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중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벧전 1:3)

미주 기독교 목우회 임원 및 분과 위원장 명단

고문 이광덕 목사 장프렌시스 목사 정시우 목사	부회장 류담열 목사 표세홍 목사 김비율 목사 엄테레사 목사 박상원 장로	서기 전희숙 목사 부서기 박인곤 선교사
수석부회장 최학량 목사	총무 백형로 목사	회계 정여창 목사
감사 정시우 목사 김영봉 장로	부회계 김에스터 목사	

분과위원장 및 합창단(중창단)

1. 지진 및 재난분과 위원장: 차기학 목사
2. 여성분과 위원장: 백지영 목사
3. 체육선교 분과위원장: 박인곤 선교사
4. 타 인종(영어권) 분과 위원장: 박이나 목사
5. 교육 분과위원장: 권예희 목사

* 한국파송선교사: 윤송 김용호 목사, 홍인숙 사모

합창단 단장: 유익상 장로
부단장: 차기학 목사(남), 그레이스 황 전도사(여)
반주: 조정미, 이경희, 차지혜, 우정자

기독교목우회

한인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위한 컨퍼런스

글로벌 고아사역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

전세계있는 고아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한국과 미국의 교계의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강사



릭워렌 목사



최흥준 목사



폴 페닝턴



에디 변 목사



박형은 목사



에리자벳 스타이피



스티브 모리슨



로빈 페닝턴



박영진/박영주



- 주관 : Hope for Orphans, Saddleback Church, The PEACE Plan
- 후원 : MPAK (한국입양홍보회), CMF Ministries, 서울 온누리 EM
- 날짜 : 2012년 5월 1일 (9AM~5PM)
- 장소 : Saddleback Church, 1 Saddleback Parkway, Lake Forest, California



hopefororphanskorea.org

Register today and save 50%. Use code CD. Go to hopefororphanskorea.org to learn more and to register.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홈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장성건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364.2124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마켓용 Gondolas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했던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liff Ave. Lancaster, CA 93535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상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센츨럴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센츨럴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교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툰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면교바르기도하는 알로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증,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최고가 현금매입

금 삽니다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sasaferterschool.blogspot.com

믿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APPLE TREE ACADEMY

Pick up, 건강한 식안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식재료 도 · 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뜨거운 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2월 24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현재 숙성과정 학생모집 (믹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전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통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인터뷰] 한국입양홍보회 스티브 모리슨 대표



스티브 모리슨 대표

고아 입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나눌 때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대상으로 '글로벌 고아사역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고아들을 위한 소망'(Hope for Orphans, 회장 폴 페닝턴)이 주관하고 MPAK이 후원하는 고아들을 위한 행사다.

-그동안 10여년이 넘게 고아사역을 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만, 특별히 내달 초 컨퍼런스를 마련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한국교회는 지난 1백여년에 걸쳐 부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큰 진보를 이뤘고,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역에는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아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수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지키고 실천해 왔는지 자문하고 되돌아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고아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교회만 크게 짓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고아사역을 비전을 두고 힘을 모으고 있는 바램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먼저 미국 고아사역에 큰 기여를 해 온 폴 페닝턴 대표와 텍사스에서 만나 의견을 교환했고, 그후 서울 은누리교회 EM을 담당하고 있는 에디 변 목사 등이 가세하면서 전 세계의 고아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놓고 본격적으로 나서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지요.

특히 폴 페닝턴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교회에도 고아 사역에 관심을 두고 비전을 펼쳐 나갈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주에서 이같은 대화를 열게 됐는데,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어서 열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순수혈통주의를 고집하는 한국의 고유 문화와 뿌리 박힌 유교사상 때문에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해외 입양을 꺼리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무엇보다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인식개선과 입양교육 및 홍보를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해마다 버려지는 아이들이 1만명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1천2백명은 해외로 입양되고 1천명이 국내에서 입양되는데, 나머지 7천5백여명은 보육원과 고아원 등에 보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아이들을 이런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해외로 보내서 따뜻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선 수년전부터 정책적으로 '국의 입양쿼터제'를 도입해 갈수록 해외입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시행한 쿼터제이지만 국내입양이 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많고 있는 실정이지요. 물론 한국이 OECD 가입국이 되고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보다도 아이 한 명이라도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입양을 적극 홍보하시는데, 부정적인 면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해외권 국내권 입양돼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한 입양인들이 불평과 불만을 퍼뜨리면서 입양에 대한 나쁜 인상을 주곤 합니다만, 성공한 입양인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입양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아이가 태어나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은, 타고난 성격과 주위환경, 교육 수준 등의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단순히 입양에만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에 고아사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사상에 아이덴티티를 두고 있어 고아 사역에 무관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디 한국교회와 고아사역에 보다 관심과 정성을 쏟아 주셨으면 합니다.

정하나 기자

찬양인도자 위한 "영성+실력+노하우" 클리닉

찬양 인도에 대해 어려움이나 한계를 경험하고 좀더 깊은 부분을 알고 원하는 사역자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LA Worship Church(변경진 목사)에서 '찬양인도자 클리닉'을 준비한 것. 강사는 변경진 목사다. 이 클리닉에서는 찬양인도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변경진 목사

변 목사는 "찬양인도자로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알아야 할 성경적 지식 뿐만 아니라 찬양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담임 목회자와의 소통, 악기팀 관리와 음악적 코디네이트까지 다양하면서도 세심한 내용들을 다룰 것"이라며 "매주마다 자신의 사역을 리뷰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나가고 서로의 사역을 도와 주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 목사는 "무엇보다 찬양인도자로서 매마르기 쉬운 사역 현장에서의 영적 감성을 성령의 은혜로 적시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 클리닉은 오는 15일부터 매주일 오후 6시에 6개월 과정으로 LA Worship Church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찬양인도자·지망자이다. 수강료는 \$350(저녁식사+교재)이다.

변 목사는 1992년부터 찬양인도를 시작해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 '율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에서 훈련을 받고 사역을 했다. 2000년에 도미해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 등지에서 찬양 사역을 계속 이어갔다.

현재 LA 다운타운에서 이은수 목사가 인도하는 'HOUSE OF WORSHIP' 모임에서 찬양 인도와 설교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변 목사와 일문일답.

-클리닉을 소개한다면.

예전에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세미나를 섬겼었다. 찬양인도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많지 않지만 보통 3-4일 과정으로 한다. 이런 세미나를 섬기면서 현장의 찬양인도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3-4일이 이벤트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다. 세미나가 짧다 보니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점에 있어서 장기간 모임을 가지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재작년 연말부터 기도하면서 이 클리닉을 준비했다.

이 클리닉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 예배에 대해 자세히 본다. 현재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우선적인 대상이다. 담임 목회자와의 관계성, 찬

양인도자로서 팀을 운영 하는 부분, 음악적 부분, 예배 콘티 짜는 부분 등 굉장히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 있다.

또 찬양인도시 표정관리, 멘트 등 이런 부분이 정형화될 수는 없지만, 서로 조언을 주고받고 연구를 하려고 한다.

또 현장 사역자들이 때문에 매주 예배를 녹음해서 돌아보며 보완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한다. 무엇보다 찬양인도자들의 자격을 말한다면 음악적인 부분이 전부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이다. 때문에 찬양인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서 충전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이다.

나는 20년 찬양사역자로 사역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많은 사람과 클리닉을 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과 제대로 하고 싶다.

-찬양인도자들이 갖춰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찬양인도자가 없는 교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찬양인도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풀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찬양인도자 자리에 선다면 개인 스스로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영성훈련을 열심히 해야 한다. 많은 회중 앞에서 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1대 1 관계가 친밀해져야 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끌고 나간 것을 볼 수 있다. 찬양인도자의 자리가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세워지고, 다음에 음악적인 부분이 훈련돼야 한다.

찬양인도자들의 어려움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세워졌지만 영적으로 고갈되고 오히려 그런 중에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목회자들도 '괜히 저 사람을 찬양인도자로 세웠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찬양인도자와 목회자가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면서 목회자들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따라서 주위로 부터 기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모두 충분히 공급해 주면 좋겠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다.

토마스 맥 기자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AT&T, Verizon 가정용 전화 완전 대체!

무료 부가서비스

070 마이코리아번호** 한국 전화번호 제공 + 아이토크글로벌 휴대전화로 매월 500분 국제전화 무료!

글로벌 플랜 Global Unlimited Plan

-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통화
-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 발신자 표시 기능, 착신전환 기능

~~\$24.99~~ **\$9.99** /월

글로벌 플러스 플랜 Global Unlimited Plus Plan

-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 한국 휴대전화 까지 무제한 통화!

~~\$34.99~~ **\$14.99** /월

놀라운 요금! 놀라운 품질!

\$9.99* (첫 3개월간)

무제한 통화를 즐기세요!

행사기간 2012년 4월 16일 까지

이런 분들께 아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 집전화를 사용하고 계신 모든 분
- ▶ 평소 미국, 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량이 많으신 분
- ▶ 전화카드로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국제 전화를 거시는 분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 365일 오전 6시 ~ 저녁 10시 30분 (P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한인파트너 매점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703.348.7544** (동부시간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현대자동차 구입이나 리스에 관심 있으신 분

2012 최신행
EQUUS



8 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함을 느껴보세요.

\$599 + TAX

Closed and lease 48 month plus tax
MSPP: \$59,650 Residual : \$29,228.5
T.D.O: \$4,995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방문하시면
유명 골프장에서

두분이 무료로

라운딩 하실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조건에 해당 되시는분께는 티켓 2장을 더 드립니다)

행사기간 2012년 4월1일~30일

가장 많은 EQUUS를 보유한 북미 No.1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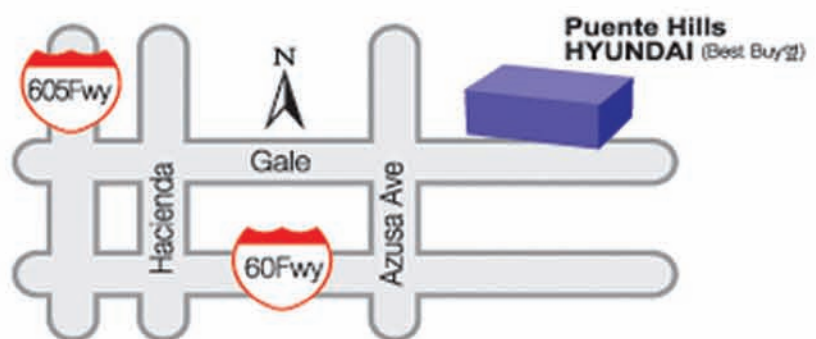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America's Best Warranty
10 Year/100,000 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YUNDAI
You said it. We heard it.
IN THE BOOTH.



*L.A. 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WWW.PHHYUNDAI.COM 1-888-644-711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